

6차산업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 개장 4주년 온라인마켓, 특별 이벤트 진행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전북 고창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대표 류영기)이 4월 22일 개장 4주년을 맞았다. 상하농원은 아이와 어른들이 자연 속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사업의 근간인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기여하는 농어촌 테마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창군, 매일유업의 공동 투자로 조성된 상하농원은 2008년 첫 삽을 뜨고 2016년 4월 22일 공식 개장했다.

'짓다·놀다·먹다'라는 콘셉트를 담은 상하농원은 농업(1차)과 식재료 가공(2차), 유통과 관광 서비스(3차) 산업을 하나로 묶은 6차산업 체험형 테마공원이다. 상하농원은 장인들이 공들여 건강한 식료품을 만드는 공간인 공방, 직접 먹거리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교실, 공방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인 농원상회와 파머스마켓 등으로 조성됐다. 레스토랑과 카페,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 농장까지 한곳에 있어 매력적인 여행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8년에 오픈한 '파머스빌리지'는 자연 속에서 진정한 팜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는 다목적 호텔이다. 이곳은 숙박 외에도 250명을 수

용할 수 있는 웨딩 연회장과 150명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갖췄다. 매일 아침 파머스빌리지에서는 상하농원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고창 지역의 깨끗한 제철 재료로 요리한 친환경 조식 뷔페를 제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상하농원은 개장 4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과 체험이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요소가 겸비된 다양한 산책로 개발과 상하농원 동물 식구 권리장전을 도입해 양떼목장 확장, 계사 리뉴얼을 통한 동물들의 복지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자연 속에서 만나는 품격 있는 휴식을 콘셉트로 한 야외수영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상하농원 온라인 마켓도 4주년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신규 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입 감사 쿠폰과 특가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농원 홈페이지(<http://www.sanghafar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상하농원을 교육과 체험이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요소를 갖춘 배움과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하농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짓다·놀다·먹다·쉬다 6차산업 관광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지역대표기업인 상하농원은 고창군과 협업해 6차산업 모델과 지역 농가 협업,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농촌 생활 체험 관광을 상품화할 계획이다. ▼



상하농원 전경